朝鮮日報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金漢臨
編輯局長 文東彩
發行所 서울市太平路一街 朝鮮日報社
電話本局 編輯 三三二八五 營業 三三二八四
月定購讀料 貳百圓

憲法大體討論은 終幕
今日逐條討議에
草案全條文의 修正氣色濃厚

午前會議에 繼續하야 午後二時부터 再開한 憲法大體討論은 同日午後四時二十分에 終結하고 逐條討論인 第二讀會가 今一日午前會議부터 始作키로 되였는데 只今까지의 討論結果로 보아 全文에 亘하야 相當한 正動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討論
廿一次下午

▲延禧‖草案을全面的으로 支持함으로 速히 通過하기를 要望한다 ▲張勉‖女性의 待遇가 明示되여있지 않음은 遺憾이다 敎育問題에 있어서 初等敎育을 義務敎育으로 하였으나 十五歲以下의 少年勞働에 從事하지 못함으로 十五歲까지를 義務敎育年齡을 修正하기를 바란다 또 宗敎信仰을 國家가 保護할 것을 明示해야 할 것이다 ▲辛相學‖草案을 全幅支持한다 ▲盧일煥‖草案이 民主經濟로 되어있으나 對外貿易은 國家에 强力히 管理해야 할 것이다 ▲陳洪均‖大統領選擧와 權限에 對하야는 草案에 反對한다 그리고 草案語句로서 曖昧한 點이 있다 例를 들면 大統領權限과 土地는 農民에 分配와 限界의 明示가 있어야 할 것이며 農村文化開發의 條文도 넣어 都市集中의 文化를 農民도 享受케 해야 할 것이다 ▲徐二煥‖兩院制와 大統領直接選擧를 主張하고 國務總理는 國會의 同意로 任命케 함을 要望한다 徐議員의 發言이 끝나자 李錫柱議員이 特請으로써 至今까지의 諸議員의 發言은 大概重複되는 問題가 많음으로 大體討論은 以上으로 終結하고 明日부터 第二讀會로 드러가자고 動議하야 滿場一致 可決되여 午後四時二十分 閉會하였다

堅決한團結로 日再武裝을防止
對委會서 籌備聲明

韓獨 民獨 勤民黨等二十五政黨團體로서 構成된 日本再武裝對策協議會擴大籌備會에서는 三十日 要旨다음과 같은 共同聲明書를 發表하였다

우리는 日帝의 再把再武裝化를 破碎하고 日帝의 再侵略을 防禦할 諸對策을 樹[illegible] 이 堅決히 組織的으로 [illegible] 할 것을 呼訴한다 앞서 友邦中國人民들이 調査究明한 바와 같이 [illegible] 軍國主義日本은 巧詐한 手法으로 侵略을 粉飾하기 爲하야 [illegible] 日再武裝化의 [illegible]에 있으며 再次 우리 祖國을 노리고 있다 이에 우리는 內外反動이 企圖하는 祖國의 分裂隸屬을 防止하고 倭奴의 再侵略을 粉碎하기 爲하야 鐵石같이 團結하여 [illegible]을 破綻시키고 外軍을 即時撤退하도록 하여 우리손으로 南北統一 自主政府를 樹立하여야 하며 親日亡國徒輩를 排擊하자

情勢論에 警言
李議員發言으로 騷亂

廿一次上午 會議의 經過

國會第二十一次會議는 三十日午前十時 金東元副議長司會로 開會되였다 二十九日의 第二十次會議에 繼續하야 憲法草案에 對한 大體討論이 始作되기 前에 金東元副議長으로부터 前日討論에 있어서는 單院制나 兩院制나의 問題에 關한 發言이 六名 國號問題가 七名 大統領權限問題가 十六名 草案全般에 對한 問題가 四名等으로 重複되였으니 今日은 重複을 避하도록 하자는 要請이 있은 後 即時大體討論에 드러가 副議長指名으로 順序에 따라 黃虎鉉、金永東、洪淳玉、朴允源、申光均、金鐸善、張洪琰、崔泰植 等 諸議員의 大體로 草案에 贊成하는 바이나 現實性이 缺如된 點이 있으니 修正을 要한다는 各各 內容 若干 相違한 發言이 있자 다음에 登壇한 李文源議員의 發言이 問題化하야 場內는 一時混亂속에 取消要求側과 다음과 같은 應酬戰이 交換되었다 (寫眞은 問題의 李文源議員)

問題의 李議員發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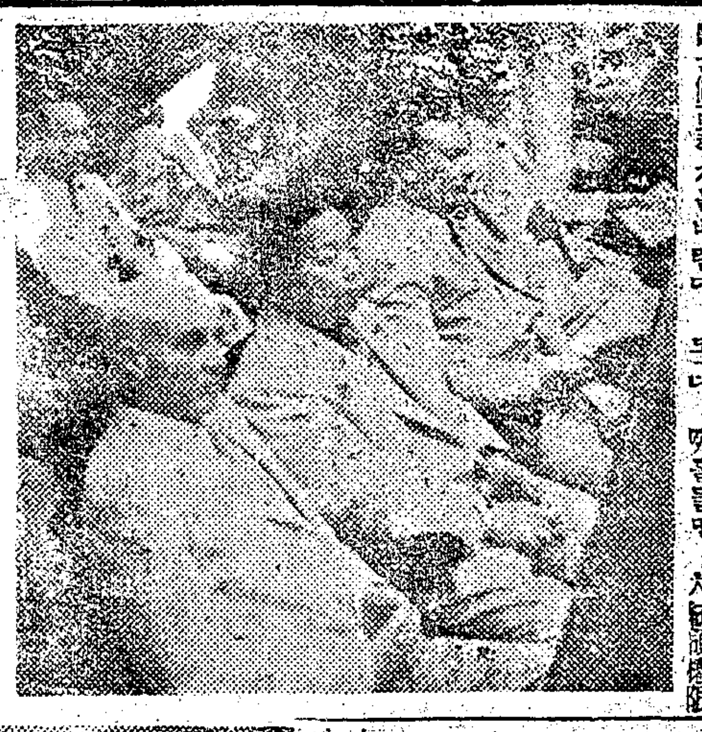
△李文源議員‖全的으로 今般草案을 反對하며 國會의 兩院制 大統領의 直接選擧와 內閣責任制를 主張한다 法理論을 韓國해야 할 것인데 情勢論에 기우리지는 傾向이 많다 그리고 이번 草案은 어떠한 幹部側에서 意識的으로 어[illegible] 草案을 만들려고 어물한 感이 있다

△李晶來議員‖李文源議員의 大言取消를 要求한다

△徐再錫議員‖李文源議員의 發言中 幹部란 누구냐? 取消없으면 懲戒處分에 부치자

이때 羅容均議員의 起草委員에게 內容을 [illegible]하자는 發言이 採擇되여 李允榮起草委員으로부터 起草委員은 나무 精神에 는것이 아니요 各自最善을 다하였음에 이는 委員에 對한 侮辱이라고 懲戒委員會回付를 要求하니 李南圭、徐再錫兩議員도 懲戒를 要求하자 다시 發言權을 얻어 登壇한 李文源議員은 『어떠한 幹部란 起草委員長이나 議長을 指稱함이다』라고 說明 이때 李南圭 曺泳珪 鄭光好 曹國鉉 李鍾洙 其他數名의 議員이 [illegible]求코 李文源議員을 [illegible]로 降壇시키니 李康雨議員은 다시 嚴肅한 懲戒를 要求하는 等 場內는 다시 騷亂해저서 金東元副議長은 議長의 職權으로 十分間休會를 宣言하였다 이리하야 十分後 다시 開會되어 尹致暎、李康雨等議員으로부터 李文源議員의 發言은 取消程度로 場內를 收拾하자는 發言이 있자 金明東(忠南)議員으로부터 議長의、制止에 不應하야 場內를 混亂케한 李南圭議員 外數議員은 國會法第九十一條에 依하여 懲戒委員會에 回附하라는 動議로 應酬하는 等 場內는 騷亂하였으나 結局 李晶來議員의 勸告로 李文源議員이 『失言으로 取消한다』는 謝過로 一段落되어 上午會議를 마치었다

自由正當한 選擧로 認定
對總會報告書에 確實히 記錄



寫眞 上은 國聯朝委代表 下는 演說하는 『바예』 臨時議長

바朝委議長 國會서演說

國聯朝鮮委員團一行 佛蘭西代表『폴、봉크르』氏 印度代表『싱』氏 中國代表劉어萬博士、엘、살바돌代表『바예』氏 比律賓代表『루ー나』氏及 加奈陀代表『패터슨』氏를 비롯하야 副代表書記官等 十六名은 三十日午後二時五十九分 國會第二十一次會議에 參觀하였는데 一行을 歡迎하는 李議長의 歡迎辭에 對하야 國聯委臨時議長『바예』氏(엘、살바돌代表)는 다음과 같은 答辭를 하였다

于先 貴國會開院式에 本委員團員 一同이 參席치 못한 것은 一大의 遺憾이였읍니다 當時 本委員團은 上海에서 本委員團의 報告文第一部를 作成하는 中이였음으로 本委員團佛蘭西代表의 一員인 『코스틸』氏가 開院式에 參席하였읍니다 今日 本人은 이 國會를 利用하야 六月二十五日 本委員團은 一九四八年五月十日施行한 選擧의 結果는 本委員團의 監視가 可能하며 全韓國人口의 約三分之二를 合하는 選擧人의 自由意思를 正當히 表現한 것이라는 意見을 記錄하기로 全員一致하야 可決하였다는 것을 諸位에게 公布합니다 選擧監視의 結果 本委員團은 以前에 言論自由、出版自由及集會自由의 民主主義的權利를 重하는 相當한 程度의 自由分圍氣가 存在한다고 宣言하였읍니다 本委員團의 決議는 本委員團이 建議한 選擧節次를 各關係官憲이 大體로 正確히 適用하였다는 것을 本委員團이 確認한 後에 採擇된 것입니다 選擧施行中 韓國民이 發揮한 愛國精神을 本委員團은 祝賀하는 同時에 또한 誠心誠意로 最短可能期間內 韓國統一達成을 期하야 努力하심을 本委員團은 希望합니다 過般選擧에 關한 本委員團의 決議를 公布함에 添加하야 一九四七年十一月十四日附 國際聯合總會決議第二에 依하야 本委員團은 韓國民이 選擧한 代表者와 그분들이 그러한 商議를 要望하면 協議할 用意가 있다는 事實을 再次發表합니다

社說

內閣責任制냐、大統領責任制냐

一

國會가 一般討論에 부치고 있는 憲法案에는 國號問題、國會의 兩院、單院制問題도 極히 重要한 問題이겠지만 그中에서도 큰 問題는 所謂內閣責任制냐 大統領責任制냐의 論議가 今後組織하려는 政府와 國家의 性格을 規定하는 重大한 것이 될 것으로 이는 憲法이라는 成文律 그것에만 國한 것이 아니고 南北統一과 直接、間接으로 國際關係에 重要한 波紋을 이르킬 政治的要素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 問題討決如何는 國會自身의 實錄乃至 그 責任에 돌아갈 問題도 派生할 境遇도 없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런 만큼 國會員自身들도 깊은 硏究에서 그 使命과 責任을 다하기에 努力할 바이거니와 一般選擧人으로서도 이에 對하야 깊은 關心을 가저야 할 것이다。

二

大抵 오늘의 立憲民主政治의 要諦는 實로 國民(人民) 主權思想은 形式에서 만이 아니고 實質에 있어서 가장 忠實키에 努力함에 있다 이번 草案에도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發한다』고 했다 그러면 이 國民主權思想은 三權分立에 있어서 어떠케 表現되며 어떠케 運用될 것이냐가 問題인 것인데 問題는 司法權(部) 立法權(部) 對 行政權(部)의 關係問題인 것이다 三權分立은 文字대로의 分權對立은 無意味한 것이고 또 權力의 均衡主義만으로도 滿足할 수 없다 分立均衡에서 다시 圓滑한 全體的調節을 하게 하므로써 國政의 積極的인 面을 차즐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니 이는 兩者의 權力의 發源이 한 國民에 있는 만큼 國家權力의 統一性을 일치 않도록 할 것과 同時에 어느 한 權力이 獨斷的이 되여서 안될 것을 期하여야 할 것이다 即 兩者中 行政權은 그 廣汎한 國務의 遂行에 있어서 그 自體가 立法的性格을 가지게 되는 만큼 立法部에서 보다도 行政部가 國民의 一般意思와 遊離되지 않도록 獨裁的傾向을 制限하는 方途를 取하여야 할 것은 國政의 圓滑과 安定을 爲하여 極히 必要한 바이고 또 新興民主國家의 憲法으로서 國民主權主義의 消化力量을 보이는 것이 될 것이다。

三

只今國會에 上程된 憲法草案을 보면 第四『政府』의 第二節『國務院』의 節은 第一節大統領의 節에 부처 있을 것이지 別節의 意義가 없다고 본다 即 國務總理以下國務委員은 行政權首班인 大統領이 獨自的으로 任命하게 되어 國務會議結果란 것은 大統領의 意思를 버서나서 있을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大法官以下國家機關의 重職者의 任命이며 國務會議의 議決事項은 비록 會議의 形式을 갖인다 하나 議長이요 行政權의 首班者의 意思로 一貫될 수 있을 것이 明瞭하다 그러고 國務總理以下 國務委員은 勿論 大統領은 國政如何에 對하야 國會에 何等責任지는 바 없다 다만 違憲、違法에 對한 國會의 彈劾을 받을 것이 規定되어 있는데 이 點은 國務遂行上 行政權과 立法權과의 關係、調節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法憲에서는 大統領責任制란 것은 結局 國會와 國民 앞에 無責任者가 될 것밖에 없다。

臨政系 蹶起憂慮
『大韓民國』을 固執?

廿次下午 會議續報

二十九日의 午後에 繼開된 國會第二十次本會議는 午前에 繼續하야 憲法草案에 對한 大體討論이 繼開되였다 그런데 韓民系議員은 沈默과 速決主義態度로 臨하였으며 獨促系에서는 國號를 大韓民國으로 强調하는 一便 萬若 다른 國號를 使用한다면 臨政의 다른 志士들이 大韓의 看板을 들고 나올 憂慮가 있는 同時에 分裂과 混亂을 釀成하는 根源이 될 것이라고 하야 注目을 끌고 있다 無所屬側에서는 大膽率直히 大統領制의 矛盾을 指摘하야 獨裁專斷의 精神下에 起草된 非民主的 法이라고 批判하였는데 主要한 辯論要旨는 如左하다

徐淳永議員 草案의 單院制는 民主主義도 期待할 수 없으며 危險한 것이다 國會의 立法權이라는 것은 大統領이 涉합 수 있어 國會는 佛像과 같이 되였으며 行政組織을 보면 大統領이 國務總理를 兼任하고저 하는 政治思想이 胚胎된 것 같은 疑訝가 있는 바이다

申性均(無)議員‖憲法草案에 흐르고 있는 精神은 一 第一派가 國會와 政府를 獨占하여 가지고 大統領의 任期四年동안에는 民族이 願치 않는 獨裁政治를 하려는 것이다

國號『大韓』의 辯

朴順碩(三・一)議員‖國號는 반듯이 『大韓』이라고 하여야 한다 海外에서 獨立運動하든 老志士들이 大韓이라는 看板을 들고 나올 憂慮가 있으니 그렇게 되면 分裂과 混亂을 助長하는 結果가 될 것이다

裵憲(無)議員‖憲法草案은 起草委員의 [illegible]한 檢討로 아마 內閣責任制가 起草되였든 것인데 어떤 분의 强要에 依하여 하로밤 사이에 大統領責任制가 된 것이다 그럼으로 起草委員들의 良心을 疑心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對하여 [illegible] 尹致暎、李康雨 [illegible]議員으로부터 『어떤분이 强要』라는 句節을 糾明해야 된다는 發言과 强要云云의 取消를 申議長이 勸告하여 裵憲議員은 失言임을 率直히 取消하였다 그리하여 同五時散會하였다

南朝鮮의 苦痛은 不當
即時送電하라
美國務省、蘇政府에 通牒

【워싱톤三十日發UP朝通】美國務省은 드디어 直接『모스크바』當局에 對하여 南朝鮮美國地帶內의 不當한 苦痛을 防止하기 爲하여 南朝鮮에 對한 電力供給을 再開하라고 要求하였다 即『월터·베델·스미스』駐蘇美大使는 蘇聯外務省에 對하여 通牒을 傳達하였다

公報部發表

이에 關하야 南朝鮮駐屯美軍司令部에서는 昨日過政公報部를 通하야 同通牒全文을 發表하는 同時에 美蘇兩當局間에 締結된 一九四七年六月十七日 電力協定의 內容을 밝히었다

本官은 南朝鮮에 對한 電力供給問題에 關하야 貴下의 注意를 喚起하는 光榮을 가졌읍니다 貴下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朝鮮의 主要發電施設은 大部分이 現在蘇軍이 占領한 北緯三八度以北의 地帶에 있읍니다 또 이 發電施設이 現在美軍이 占領하고 있는 三十八度以南地域의 電力需要量을 充分히 供給할 수 있도록 計劃되여 있다는 事實도 貴下는 잘 아실 것입니다 (中略) 本政府의 見解로서는 蘇聯軍이 北朝鮮을 占領하야 蘇聯司令官은 一九四七年六月十七日附 同協定에서 規定된 責任을 [illegible] 回避할 수 없다 [illegible] 萬若 蘇聯司令官이 南朝鮮에 對한 送電拒否를 固執한다면 南朝鮮地에 居住하는 人民은 不當의 困境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 南朝鮮에 對한 送電을 即時復舊할 것과 또 하ー지中將이 提案한 交涉會議에 美軍司令官이 任命한 代表와 함께 參加할 것을 蘇聯司令官에게 指令하여 주기를 要望하는 바이다

美蘇電力協定內容

美軍經局은 이미 供給된 電力에 對한 解決策을 講究하고 앞으로 供給될 電力에 對한 解決策의 基準을 確立하기 爲하야 一九四七年六月十七日에 蘇軍當局과 電力協定을 締結하였읍니다 同協定의 內容은 大略 다음과 같습니다

(가) 一九四五年八月十六日부터 一九四七年五月卅一日까지에 供給된 電力의 代金은 一九四一年度의 代金每『키로왓트』 〇、〇一九五圓으로 計算하야 都合 一六、三三四、七三五圓으로 決定함

(나) 支拂은 器具及指定物資로 하되 美軍當局은 最終의 改正明細書에 規定된 日字로부터 六個月以內에 輸送할 것

(다) 器具及物資의 代金은 一九四一年度의 價格表에 依據하야 決定하되 萬若 이에 對하야 必要한 參考資料가 없을 境遇에는 이에 該當하는 美國의 價格表를 使用함 이 目的을 爲한 換算率은 百圓對二三、四四弗로 함

(라) 特殊物資의 輸送이 指定時日에 不可能하게 된 境遇에는 相互協定에 依하야 새로 輸送期間을 決定 또는 他物資로서의 代用을 決定함

(마) 一九四七年六月一日以後에 供給된 電力에 關하야는 따로 協定을 締結할 問題이며 一個月以內로 이 協定에 署名할 것

無所屬俱樂部로 發足
三一・無俱 29日 無條件合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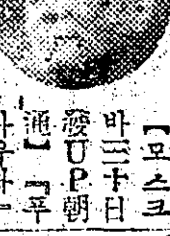
無所屬과 三一兩俱樂部의 合同大會는 廿九日下午六時 市內大古寺에서 兩俱樂部所屬議員九十餘名參席下에 無所屬側 李文源議員司會로 擧行되어 李文源氏의 開會辭가 있은 다음 三一側陳憲植議員으로부터 經過報告가 있은 後 臨時執行部議長選出에 드러가 最高年齡者인 三一側李鍾麟議員이 當選되고 이어 規約及合同聲明書 通過가 있었는데 三一側崔天致 陳憲植、李鍾洙各議員으로부터 同規約과 合同聲明書에 李承晩博士路線에 總力量을 集中케 하자는 文句를 揷入하자는 意見을 强力히 主張한 바 있었으나 無所屬側의 南北統一은 平和的으로 解決하자는 鐵則이 있는 以上 그러한 文句의 揷入은 必要치 않다는 反對가 있어 結局票決한 結果 別項과 같은 無所屬側原案대로 卅四對廿四로 通過되고 三一側의 無條件合流條件에 依하여 規約은 無所屬側規約을 採擇하기로 하는 同時에 名稱도 無所屬俱樂部로 하기로 되였다 그리고 任員選定과 앞으로의 連絡事務는 앞서 各五名式 連絡委員으로 選出된 李文源 金宗 陳憲植 李鍾洙 裵憲 金仲基 金益魯 李聖學 苗斗淵 柳聖甲 以上十議員에게 一任하기로 하고 下午七時卅分頃 閉會하였다

合同聲明書要旨

時局의 重大性에 鑑하야 今番『兩俱樂部』는 斷然無條件 發展的 解消와 同時에 相互大的 雅量으로서 『無所屬俱樂部』에로 渾然統合하게 된 것이다 이에 우리는 多難한 새 大局面에 總力量을 集結하야써 外患內憂를 排除하면서 人民大多數의 要望에 相符될 新國家建設에 積極推進할 것을 再認識하며 右統合을 天下에 聲明하는 바이다

檀紀四二八一年六月二十九日
三一俱樂部
無所屬俱樂部

티토元帥等을 코민폼서追放
푸라우다紙確認



【모스크바三十日發UP朝通】『푸라우다』紙는 『티토ー』元帥와 其他 『유ー고 스라비아』 共產黨領袖가 數日前 『루ー마니아』 領內에서 開催된 會議席上에서 『코민포롬』으로부터 追放되였다는 것을 確認하였다 同『코뮤니케』는 『유ー고 스라비아』 共產黨의 首腦者로 『티토ー』 『카르뎨리』 『젠코비크』 等을 指名하였다 (寫眞은 티토元帥)

八面鋒

思想을 빛갈로 表示하야 所謂赤色、白色이 世界的으로 通하는지는 퍽 오래되였지만 第二次大戰後 붉은 빛에 對한 世界的 神經過敏은 大端한 바가 있다 ▲北朝鮮에는 한참동안 무우라는 말이 流行했으니 거죽은 새빨가되 속살은 희다는 ▲赤色政變後 제코슬로바키아에서는 수박이 되는 말이 流行했으니 거죽으로는 괜찬은 人物이 貿相속살은 새빨가라는 뜻 ▲이번에는 AP評論의 一記者가 朝鮮問題評論에서 속살만 새빨간 수박과 겉껍질만 새빨간 사과와 것더이나 속이 모두 새빨간 토마도를 引用 ▲거기 依하면 國會議員의 三分之一은 수박이라던가!? 이들은 只今은 美國政策을 다라가지마는 統一朝鮮實現의 成功性이 있을 때는 抗拒에 轉換할 用意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統一運動은 수박의 하는 일이란 말인가?

人事消息

▼金東吉氏(朝鮮輿論調査協會長) 人事次來社
▼張河鱗氏(京城專賣局長) 新任人事次來社
▼金若水(國會議員) 慶南東萊에서 二十八日歸鄕
▼尹普奎氏(過渡政府商工部編輯室編輯課長) 二十八日 市內敦岩洞一五一番地의 二四自宅에서

大平原 UNION PACIFC

突然 1日부터 首都劇場
파社超特作스펙타클映畵・活劇中大活劇
巨匠 ー 세실・B・데밀 ー 監督
바ー바라・스탄윅 죠엘・막크리 로바ー트・부레스톤 主演
★大平原을 驀進하는 유니온과시픽・獰猛한인듸안의 襲擊・悽慘!
午前十時開場・每日晝夜連續・自電・冷房完備

延白水組無條件給水
農民自決이 奏効
金九氏信任狀갖이고越北交涉

연백(延白)수리조합지대에 지난二十四일 북조선측으로부터 물이오기시작하였다함은 기보한바거니와 작년八월의현담지회이결렬된이후 쌍방이이렇다할 별교섭도없은 이때 돌연히진연백수리조합물에대하야는 일반은궁금하기짝이없었는데 二十九일하오 四시반연백수리조합으로부터 경교장(京橋莊) 김구(金九)씨에게감사의전문이 전달되였다 미소양당국이 아무리노력하여도 해결치못하든문제를우리는 우리의손으로 우리끼리 간단히 해결짓고말었다 그러고물은오기시작하였다 이전보가김구(金九)씨에게 감사의뜻을표하는전보와 동시에전말되였다는데 우리는심실한민족혼의 환기와의의를발견할수있는것이다 즉연백평야농민들은 날이갈수록뼈앗케 말러드는농토를앞에놓고 뼈앓은신음을하고있었다 그러나 물은오지않었다 여기에연백평야농민을대표하야金東根, 崔義秀양씨는통수문제를해결하고저 金九씨의신임장을얻어廿四일三八선을글지그대로돌파廿六, 廿七양일에걸처북조선당국과 즉접교섭을하야 송수하겠다는확약을갖이고廿八일서울로돌아오자마자 즉시전적으로물이내려오기시작하였다 그런데金九씨에게보고차京橋莊으로나타난 전기양씨는기자에게교섭전말을 다음과같이전하였다

우리는 우리의교섭전말을 말하기전에 미리延白郡秋化面新化里의 통수문제를이야기하겠다 연백평야중에서도 新化里一帶에는 일즉이통수가 되였다 그러나그것은당국의 교섭도아니였고 목말은자 샘판다는격으로 농민이 위험무릅쓰고 三八선을 넘어 북조선당국과 즉접 교섭한결과 이였다 여기에는 농민이 교섭하러 三, 四千명이 대거하야 三八선을 넘다가 오인을받어 많은사람이 총알에 부상을당한사실과 또는 수세를 지불치않음으로 만수하겠다기에 없는쌀을 농민들이 등에지고 三八선을 넘어가다가 죽었다는사실등 그야말로 한이 숨어있는것이다 우리는 연백평야동포에대한 남북양당국간의 교섭이 국제성을 반영하여 도저히 용의하게 잘 될 본시일내에 해결하기곤난하다는것과 또한新化里의 전례에비추어 북조선당국과 즉접교섭코저 金九씨의 신임장을얻어 廿四일 三八선을넘어 북조선당국과 廿六, 廿七양일간 교섭을하면서 농민의 고민상을 전달함과 동시에 민족대의에서 주기를요청한 결과 농업국장으로부터곳 몽수하겠다는 확약을받고 돌아오는 길이다 군지금도다오는 백성으로써잘못된점도있을는지 모으나 그러나 농민으로써 농사를못짓는다함은 죽는거와 마찬가지다 그럼으로 우리는 죽엄을걸고 나섰을 기가있었다 그러고북조선에서 금수를중지한 리유는 『공사비(工事費)일천만원과 금수비로서 지불하기로된 백미만석을 지불하지않었기때문이였다』라고 말하는 양씨의얼골에는 안도와기쁨의빛이가득하였었다 이로서뽀았케 말러붙었든 二만四천정보의진흙땅은 다시기름진옥토로변하야 다시우렁찬농부가가들려오게되였다

首都廳事件의 搜查一段落
崔雲霞等送廳되여取調開始

수도관구경찰청 최운하(崔雲霞) 사찰과장과 동대문경찰서 박주식(朴朱植) 서장등에관한 독직사건에관하여는 루보한바와 같이 지난二十三일 팔게자 강태섭(姜泰燮) 만구속으로 송청되고경찰관에관한 청취서는 수도경찰청으로 갓으며 수도청자체가 재조사한다하야 물의를 이르키고 수도청과 수사국간에는 담화까지 있었으며 미묘복잡한 공기속에 수도청장(張) 청장의 사표제출설까지 이러나고 있든바 二十九일결국 수사국에 반환되여 수사국에서 三十일드디어 정식으로 송청함으로써 동사건수사의 일단락을 보게되였다 한편 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 감찰부장 김영재(金永在) 검사가 동사건을 담당하야 동일오후 전기 최운하 박주식양씨 취조를시작하였다한다

濟州道事件 急速解決을
各地濟州道民蹶起陳情

四월三일 폭발이후 三개월 을넘도록 종식되지않고 민족의류혈이계속되고있는 제주도사태에관하야 재경제주도인은지난번이의평화적해결을각개당국에호소청원한바있었거니와 금반남조선각지에있는 제주도출신인사들이 총궐기하야제주도사태의수습을 촉진시키고있다한다 즉전라남도광주에 있는 제주도인은 지난二十四일 각계에 진정서를제출하는 한편 제주도사태의정확한 진상을 파악하야 해결에 기여코저 변호사一명과광주신문기자단을 현지에파견하였으며 대전(大田) 제주인들도 전원연서하야 당국에평화적이며 급속한 해결을진정호소하였다한다

福井縣地震 關東震災에 匹敵

일본『후구이』(福井) 현(縣) 당국의조사에의하면 시내사망자만 二천六백二十四명에 달한다고하며 중상자七천 백三十五명 가옥붕괴一만 九천호 지진으로말미암아 불에탄것이 四천호라고한다 또한동현내중 가장손해가심한곳은『마루오까』(丸岡町) 부근이며 가옥도피一천六백九十二호사망자약천명부상자二천명이고 『후구이』현전체의손해는 현재까지판명된것이 도피가옥이二만九천二백二十호 훼손가옥이一천六백八十八호 소실가옥이 六천四백五十八호이고 현재도인적 물적손해에 관한보고가입수중에있으며 『후구이』현 당국은 금번진재는지난一九二三년의 관동(關東)대진재를 능가하는것으로 추측되고있다고한다

教育費捻出에
서울市民稅增收

의무교육실시 국민교의 학급증설등으로 서울시당국에서는 교육비를염출하기위하야시민세를늘린다는데 즉四十八년도교육비독별부담금으로약二억원을신년도호별세에 부과할터이라한다

金品强奪한 假刑事逮捕

경찰관을가장하고 금품을강탈한 가형사가 체포되였다 지난二十一일아츰 서울시 신설동(新設洞)三〇六번지의一호 이중렬(李重烈)(四一)씨집에 용산서에 근무한다는 자칭형사 정덕기(鄭德基)(三六)외 三명이 나타나 금을밀매한 혐의라고하며 가택을수색한 끝에 동행을요구하자 전기 이(李)는 사실을부인한즉 알고도 묵인할터이니 十만원만주기를청하야 五만원을주고 고무사한사실이있었다 그런데그후 전기 이(李)씨는 가형사의행동임을알고분개하고있던중작二十九일 종로三가네거리에서 형사라는 전기 정(鄭)을발견하고 경찰에 연락체포하고보니 제법수갑을차고있었으며 위조한 신분증명 극장공행임검증 야간통행증등을 갖인가형사이였는데 취조에따라서는 여죄가많이들어날것이라한다

三對一의 競爭
國立大學오늘부터入試
法政系統이首位로

금년도 국립서울대학교 입학시험은 금一日아츰아홉시부터 산하각단과대학 별로일제히 거행하기로되였다 이에앞서 동대학교각 단과대학에서는 지난六월 十九일부로 입학지원자마감을하였는데 三十일현재로동대학교무처로 보고된 각단과 대학의입학지망자 총수는모집인원 一천八十명에대하야 二천칠백三十명으로 되어있다 즉금년도 동대학교입학지망자수는 수용력의 약三배나되어 있어 학도들의 진학의길은여전히좁다 그러고 이것을 다시각단과대학에 나타난 과별희망자수를보면법대(法大)의一대七을 최고경쟁률로 문리대(文理大)의정치과 一대六공대(工大)의 一대六상대(商大)의 一대六등 정법과계통의지원자수가 압도적으로많고 이공과계통 이제二위 기타문과계통의 순위로되여있다 종전의예로보아 이공과계통의압도적인기도 근래에와서는매년줄어들고있는데 이것은 해방이후 이공과계통의우수한교수진의퇴진과 아울러 모—든실험설비의빈곤등에 주요한원인으로되어있는반면 법정계통은교수진의빈곤을극복하고 존귀운도서관의 이용그밖에시대적반영등이 학생들로하여금모여들게하는것이 않인가한다 그러고 동대학교는 금년도를마지막으로떠나는 과학생들을 무조건수용하는까닭으로 외부희망자는 상당한난관을 격게되는데 각단과대학의 예과진학자를 제외한각단과대학의입학경쟁률은 다음과같다

	志願者數	募集人員	率
文理大	六二五	一〇〇	(六·二五)
醫大豫	一七〇	一二〇	(一·四〇)
法大	七〇〇	一〇〇	(七·〇〇)
工大	三〇〇	五〇	(六·〇〇)
商大	二七八	四〇	(六·九五)
師大	三二七	一〇〇	(三·二七)
農大	一六八	二五〇	(〇·六八)
同獸醫	四五	二五	(一·八〇)
藝大音樂	四四	四〇	(一·一〇)
美術	三七	一〇〇	(〇·三七)
醫大學部募集치않음			

中國人謀利輩 仁川서摘發送廳

인천(仁川) 선린동(善隣洞)二八 천합루(天合樓)에있는 중국인 모덕명(慕德明)(五四)는유광지 三백편으로 三十九만원의 폭리를취하다가 경기도물가행정청에 적발되여二十五일 송청되였는데 인천선화동(仙花洞) 三十九번지에사는감서규(金瑞奎)는 조선인을앞재비로 감찰당국을매수하려든 사실까지있어 앞으로 이러한 무리에는 독히철저한단속을하리라고한다

圓『弗』換算率引上決定
輸入品의査定價格도改正

조선원(朝鮮圓)과 향항불(香港弗)의 환산률이 또인상되였다 상공부에서는 변동하는 국제경제산정에 대응하야 종래향항불 一불에대해 九十원이든 환산률을 개정하야 지난二十五일부로 一불대 백三十원으로 변경실시키로되엇는데 이에따라 十五일부로 수입품사정가격을 다음과같이 개정하였다

物品目頭車 타이야뷰ー부付組四〇、〇〇〇 (天然生고무新品最高級) 智利硝石上級品屯七六、三六〇 硝酸美國製上質品封度二三八 苛性曹達上級品封度一〇四 鹽酸加里上級品屯二二五、〇〇〇 羊毛上級品封度一五五〇

市內電車의 兩運轉系統變更

경성전기주식회사에서는 교통난의 완화를 꾀하야 오는七월一일부터 현재실시하고있는 운전계통중 그일부를변경 운전하게되었다는데 새로운전하게된 두선은아래와같다

東大門ー乙支路經由ー鷺梁津과 東大門ー鍾路經由ー靈泉

警衛殺害被疑者 最後公判서 無罪

그동안세간의이목을끌어오던 김윤홍(金允洪) 경위살해사건의피의자로서 광주지방심리원에서 엄중취조를받어오든 南해창과 조형칠량명은 지난二十四일 조심공판에서 南은사형, 조는十년의구형을받은바있었는데 廿九일상오十시동원 제一호법정에서 언도공판이 열리어 량명은 무죄언도를받었다한다 (光州合同)

無煙炭配給 每世帶에 한가마

경제과에서는 매세대에한가마씩 무연분탄을三백원에 배급할터이라고하는데 배급기일은 동대문 성동 용산 영등포각구는二十八일부터 七월八일까지 종로 서대문 마포 중구는六월二十五일부터 八월五일까지라고한다

教會堂찾고저 聖潔教會信徒大會

지난二十여성결(聖潔)교회대표 천여명은 중구무교동 성결교회 임시예배당에회합하여 성결교회모교회당을 도로찾고저 신도대회를 열고 전기 목적을완수하리라는 결의문을경정발표하였다한다

水道協會結成코 當面問題들討議

수도급수난으로 인하야 서울시뿐만아니라 남조선일대에결처 소비자는물론 수도당국에서도 항상두통꺼리가되고있는데 이수도난을 완화코저 서울시를 비롯하야 남조선각부읍면의 수도당국자가 [illegible]

電話加入者協會 寄附强要에注意

서울시내에는전화의 개선과 전화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전화가입자협회라는 단체가 조직중에있다는데 이것은 당국의 인정을받은 것도 아니고 또 체신당국과는 아무관련도없는것이니 일반은 이에가입치말라하며 만약기부금강요하는경우에는 즉시경찰에연락하여주기바란다

瀨病患者들 星座會를組織

숙명적인 문둥병환자들끼리 비록몸은 헐었으나 마음과정으로 보건사업에 이바지하며 자기들의 살세계를 개척함으로서 국민된 보람을 이루어보려고 이번에 성좌회(星座會)라는단체를 마련하게 되였다 우선환자유지들이 그창립총회를오는 十三일 대구애락원(大邱愛樂園)에서열기로되였다는데 이날은동료들이많이 참가해주기를믿고있으며 일반의 이해와동정을바라고있었다

生고무사준다고 百餘萬圓騙取
受賄警官等送驅

서울통의동(通義洞)七 차재섭(車載燮)(四二) [illegible] 洞)八)과 송봉리의동一七四 김려수(金麗洙) 三명은 지난五월 공모하야한강로(漢江路)一가一二一 포목상 김덕기(金德基)에게 생고무를 사준다고 교묘한수단으로 백二十만원을 편취하다 종로서로부터 송청되여二十九일 민문기(閔文基) 검사로부터기소되였는데 동사건이 종로서의적발되기전에 그사실을탐지하고 十五만원의뇌물을먹은종로서원 이양성(李陽性)(二八) 순경도 역시송청되여 취조를받고있다

崔淳周博士歸還

지난봄미국으로 향하야 민간자본도입(民間資本導入) 기타중요문제해결을위하야활약중이든 조선은행리사최순주(崔淳周) 박사는 용무를끝맛치고 귀국준비중이였는데 지난二十四일 공로로『화성돈』을출발 래월초순서울에 귀착게되였다고한다

团体動靜

▼獨促國民會에서는來七月七、八兩日間市公舘에서 全國代表者大會를開催
▼淑明女大에서는六月三十日同校講堂에서專門部卒業式을擧行하고七月一日에는同窓會를開催
▼靑年團體聯合雄辯大會七月六日午前八時半市公舘에서 啓蒙協會主催 (參加希望者는 中區山林洞一二〇啓協事務所에問議할事)

新刊紹介

◇소학생 六월호 서울市鍾路二街 永保빌딩內朝鮮兒童文化協會發行 定價九〇圓
◇南朝鮮의食糧事情 元容奭著 서울市中區明洞一街五九의一 朝鮮生活品營團發行 定價一百圓
◇學海第二號 서울市敦岩洞四〇七京東公立中學校學友會文藝部發行非賣品
◇中外公報 서울市乙支路二街一九六 朝鮮文化協會發行 定價六〇圓

오늘라디오

밤 ▽六、一五아름다운音樂▽六、三〇座談會 ▽七、一五떼너ー獨唱 ▽七、四五放送소설 ▽八〇〇放送學校 「醫師와부산」

日氣豫報

南東風後南西風이불고대체로흐리겠으나 때때로맑겠다 最高三〇度三 最低二二

提供 大朝映畵社 演出朴基采 撮影李明雨

밤의太陽

待望에巨篇遂完成開封!
名優競演의一大豪華캐스트!

☆ ☆ ☆ ☆
7月1日부터 四舘一齊上映 12時開舘
國都 城南 中央 東都
☆ ☆ ☆ ☆

國産最高品
鶴印 朱肉
◎種類…事務用◎證券用◎書畵用
◎販賣…全國有名文房具店

世界的家庭藥
朝鮮 멘소레담
製造元●서울市西小門洞三五
朝鮮멘소레담本舖 電光2274番

白民歌劇團公演
왜왓든가 晋州라千里길 前後篇大會 1日부터三日間
前科者 4日부터三日間
왜왓든가 晋州라千里길 完結篇 7日부터三日間
入場料25圓(稅別) 午前十一時 一日三場公演 連續 朝鮮劇場

學生募集
漢城中學校
一、第一學年 百五十名
二、入學試驗 七月八日ー七月十二日
三、出願期日 六月五日ー七月五日
四、出願用紙 請求時에試驗費百圓을先納할것
서울市西大門區北阿峴洞一三九二番地 電光化門(3)一三八二番

民聲 六月號

平壤會談의經過와意義……裵成龍
美蘇外交覺書……李甲燮
中國新生活運動의意義……車相瓚
蘇聯의原子彈……레이몬트
將來의原子力과科學精神…다이쓰
佛蘭西의性格……지ー그프리트
比律賓의風俗……(座談會)
英國의現代作家……C·뿌란덴
戰後美國의演劇動向……許執
中共軍從軍記……자크·벨덴
봄을마즌歐羅巴의消息……타임
오페라椿姬事件의眞相……채정근
短篇 管理工場……嚴興燮
短篇 暮色……金永壽
短篇 봄안개……朴飛花
(外國小說) 肉體……로오렌스·크리젤
新綠詩……五篇 其他興味記事滿載

값 140원
高麗文化社 發行

僞造商標에注意
「가짜」「金剛」고무신이나왔습니다
一般商人과 需要家諸氏는속지마시오
金剛고무工業社製品을
最近弊社製品의絕對信用과品質의優秀함을奇貨로惡德工場이粗惡한品質로「金剛」標를僞造한자짜「金剛」標가나왔아오니속지마시고必히金剛고무工業社製로指定하서서이와같은詐欺輩에게속지마시기를바랍니다
四二八一年六月二十六日
서울市 [illegible] 洞二九〇
金剛고무工業社 電話⑤二六八四·六〇八番

舞鶴燒酎
佳味醇良 実益無比